

우리 협회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변화를 기대하며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장 / 김헌

저는 1989년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 시작과 더불어 산업환경의학 분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한 학술회의에서 충북지부 김낙형 지부장님을 처음 뵈고 인사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청주에 직장을 얻은 후에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충북지부로 견학을 다니면서 김낙형 지부장님을 일 년에 한두 번씩 뵈게 되었는데, 많은 회원들의 존경을 받고 계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덕망이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성품은 따듯하시지만,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음이 부럽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낙형 지부장님이 계시지 않는 충북지부를 저는 상상해보지 않았습다.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었고, 저는 급작스럽게 충북지부의 후임 지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부장의 역할을 무엇인가? 내가 그 역할을 김낙형 지부장님의 십분의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까? 회원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활발하게 협회 활동을 해오지 않은 저로서는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협회 활동에 참여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협회 회의에 몇 번 참석하여보니, 우리 협회가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정관이 바뀌고, 편익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 좀 더 원칙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간혹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탕의 큰 부분에서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현재의 탈바꿈 과정도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협회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관을 고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만들어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우리 협회의 조직이 커졌으며, 사업이 팽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의 좋지만은 않은 여건 속에서 지금과 같은 규모로까지 우리 협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열정이 협회에 바쳐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어느 다른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역할을 우리 협회가 맡고 있는 지금, 역설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협회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보건사업 분야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우리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뚜렷하게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협회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지 않으면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큰 시련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협회에는 산업보건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고루 참여하고 있어서 산업보건사업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장비와 체계적이고 탄탄한 구조, 그리고 전국을 다 포함하는 조직망도 우리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조직이 커지다 보니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상황변화에 대응하는데 민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빠져 나오느냐가 앞으로 우리 협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나 계층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맡은 일과 역할에 합당한 관리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회원이 우리 협회에 자신의 정열을 바치려 할까요?

균형적이고 상식적이며, 어떤 구성원도 울타리 밖으로 내몰지 않는 건전한 시스템을 갖춘 협회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느 산업보건 전문가 집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는 우리 협회의 가장 큰 장점도 퇴색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안도 없이,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잘난 척 하듯 써내려 가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애써 봐도 산업보건 실무에 경험이 일천한 저로서는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보건협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지역의 지부장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럴 때 김낙형 지부장님께서 옆에 계셨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